

코레일 무주 여행상품 다양화 기대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사장 무주 방문 황인홍 군수와 다양한 의견 나누

무주군은 지난 8일 황인홍 무주군수와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사장이 무주군청에서 만나 상생 협력을 위한 환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은 지난 2월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와의 업무협약 이후 성사된 것이어서 더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과 한국철도공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이날 무주군청 군수실에서 현재 운영 중인 코레일 무주 여행상품과 당일 또는 체류형 상품 확대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무주군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코레일 무주 여행상품은 △영동역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곤돌라), 머무와인동굴, 다시 영동역으로 이어지는 코스와 △서울역을 출발해 대전역에서 버스로 이동, 구천동계곡과 무주덕유산리조트(곤돌라), 하늘빛정원(금산)을 경유해 대전역과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코스 2가지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다양한 철도상품이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더욱 특별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관광 활성화를 통해 다시 오고 싶은 무주, 머물고 싶은 무주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읍 후도마을과 한국철도공사는 2010년부터 1사촌의 인연을 이어 오고 있는 곳으로, 한문희 사장은 이날 후도마을에서 주민들과 만나 기념식수를 하는 등 관계를 돈독히 했다. 그간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들은 후도



지난 8일 황인홍 무주군수와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사장이 무주군청에서 만나 상생 협력을 위한 환담을 가졌다.

마을 일손돕기를 비롯해 농산물 직거래, 주민 대상 기차여행(해피트레인) 진행 등의 1사촌 활동을 이어왔으며 오는 4월에는 KTX 운행 20주년 기념 '무주후도마을 여수 해피트레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도마을 주민 60명이 전주역에서 여수 엑스포 역으로 이동해 해양 케이블카,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 관광을 즐기는 여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무주읍 후도마을을 정명명 이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한문희 사장은 "전북본부장 재직시절 시작된 후도마을과의 인연이 오늘까지 온 것에 감사하다"며 "그간의 정, 그리고 주민 여러분의 환대를 가슴 깊이 새겨 후도마을, 더 나아가 무주군과의 상생발

전이라는 값진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마음을 쏟겠다"고 전했다.

지난 2월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이하 전북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무주군은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의 공동 지원 및 협력, △지역관광 연계 철도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홍보·판매·인센티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으며 전북본부에서는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역축제 및 농특산물 홍보 지원, △철도관광상품 및 무주군 연계 철도 관광상품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관광객 모객 및 예약관리, 기타 △무주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항을 지원키로 약속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태권시티 무주 도약 위해 행정조직 개편해야”

문은영 무주군의회 의원, 태권도 중심 부서 신설 요구

문은영 무주군의회 의원이 태권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문은영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30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태권시티 무주, 실질적인 도약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 제안' 5분 발언을 통해 "2024년은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비롯해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고 태권도원 개원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무주군이 태권도 성지라는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뜻깊은 해"라고 말했다.

문은영 의원은 이어 "태권도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태권도원의 인원은 총 3명으로 태권시티 무주라고 일컫는 우리군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하반기 무주군 조직개편에 앞서 무주군이 태권도원의 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고 세계 태권도유관단체와 유기적 관계와 협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실



에 맞는 태권도 정책을 수립하고 현안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은영 의원은 "작년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이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추진에 유체이탈된 공극적 이유는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조직구조와 업무 분장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태권도 성지인 무주군에 태권도 관련 조직이 3명밖에 없으니 선제적 준비와 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그 결과 무주군이 태권도 사업과 관련해 무기력하다는 인상을 남겨 전북도 차원에서 태권도 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은영 의원은 무주군이 태권시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태권도가 중심이 되는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태권도 사업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기존 태권도 사업의 불필요한 중복과 절차를 제거해 업무효율을 최대한 높여 무주군이 진정한 태권시티로 도약하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 행정조직 개편에 달렸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미용비 지원사업 후 과도한 요금 인상”

황인동 무주군의회 의원, 물가 관리 대책 마련 요구

황인동 무주군의회 의원이 이·미용비 지원사업 때문에 이·미용 요금이 너무 올랐으며 행정이 나서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황인동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30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이·미용비 지원사업과 물가 관리에 대한 제안' 5분 발언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추진한 이·미용비 지원사업이 이·미용실 운영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나 무주군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동 의원은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정 이전인 2019년 6월 12,000원이던 이발료가 조례 제정 후 3,000원 인상되고 지금까지 몇 차례 올랐다. 현재 무주읍 일부 미용실과 이원에서는 커트비용을 18,000원까지 받고 있어 사업 전후로 최대 80%나 요금이 인상됐다"며 "사업 시행 당시 월 1회 커트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은 2개월에 1회 밖에 못하게



돼 그 혜택이 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황인동 의원은 이·미용비 인상 후 사업 대상자가 아닌 주민들은 타 지역에서 머리를 손질하는 일이 많아졌고 인근 지자체 이·미용실에서는 무주를 겨냥한 듯 타 지역 주민에게 요금 할인을 해주는 곳도 생겼으며 "복지 목적으로 쓰여져야 할 예산이 그 목적을 벗어나 무주의 물가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된다면 이는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용비 지원사업을 계기로 군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예산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황인동 의원은 복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의 서비스 요금 인상 제한규정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황인동 의원은 "무주에 살고 있는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생활여건을 조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타 지자체보다 높은 서비스 요금이 무주의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타 지자체로의 자본유출로 이어져 무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황인홍 군수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재차 강조하고 5분 발언을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전북사랑도민제 할인가맹점 상시 모집

진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활력을 위해 운영 중인 '전북사랑도민제'의 활성화를 위해 할인가맹점을 연간 상시 모집한다.

전북사랑도민제 할인가맹점이란 전북사랑도민제 회원이 관광객에게 일정금액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맹점이다.

진안군에 위치한 맛집, 카페, 숙박, 문화, 관광 등의 업체라면 어느 곳이든 할인가맹점 신청이 가능하다.

할인가맹점으로 등록되면 전북사랑도민제 홈페이지에 사진과 업체명, 할인혜택 등의 정보가 노출되어 자연스러운 고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관내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진안군에서 가맹점 홍보를 위해 군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업체 소개도 더할 계획이다.

할인가맹점으로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진안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신청서를 진안군청 기획홍보실 인규화력팀에 제출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공익직불제 담당자 교육 실시

진안군은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11개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년 공익직불사업 교육을 실시했다.

회의에는 군청 관계자와 11개 읍·면 담당자, 농산물품질관리원 진안사무소 담당직원 등 16명이 참석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군 관계자는 "신청·접수 시 누락되는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 대상 철저한 홍보를 해 달라"며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단가가 10만원 인상돼 13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대상 농지 요건이 완화되어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직불금 신청방법과 농업인 이행 조건에 대하여 일선에서 충분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신청은 3월 4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이행점검을 거쳐 11~12월 중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행안부 '마을기업 지정' 2개소 선정

번암느티나무협동조합법인·장수신농영농조합법인

장수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마을기업 지정' 공모사업에 재지정으로 번암느티나무협동조합법인(대표 장동업), 고도화로 장수신농영농조합법인(대표 전대호)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마을기업 지정사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컨설팅, 홍보 및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지정은 3,000만원, 고도화는 2,00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두 곳 역시 지역사회 통합과 마을 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료와 빵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번

암느티나무협동조합법인'은 공익을 위한 다양한 빵 무료시식 행사, 제빵 체험행사, 공연 등을 진행해 눈길을 끈다.

'장수신농영농조합법인'은 21개의 농가가 참여하는 법인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담배로 전국적인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베트남 하노이 중소기업 협회와 사과 수출 MOU를 체결해 판로를 넓히고자 한다.

최훈식 군수는 "최종 선정된 마을기업들이 마을 공동체 힘과 역량으로 다양한 판로를 발굴해 성장하길 바란다"며 "군도 앞으로 더 많은 마을기업이 발굴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답례품 선정위 개최

진안군은 지난 8일 답례품선정위원회(위원장 김명갑, 이하 선정위) 9차 회의를 갖고 유기식품(요구르트, 치즈), 신문구독권, 화장품 등 이색 품목 3종을 답례품에 추가했다.

이날 선정위는 안정적 공급 가능성, 품질의 전문성, 사업목적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품목을 심의했다. 군은 답례품의 공급업체를 공모하고, 답례품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공급업체를 선정해 고향사랑기부금 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으로 진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은 총 36종이 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